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의 현황과 경제적 의미

오수현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부연구위원 (shoh@kiep.go.kr, Tel: 3460-1150)

김영귀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장 (yggkim@kiep.go.kr, Tel: 3460-1188)

금혜윤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전문연구원 (hykeum@kiep.go.kr, Tel: 3460-1205)

이준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연구원 (jwlee2@kiep.go.kr, Tel: 3460-1088)

차 례 ●●●

1.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 협상 현황과 주요 쟁점사항
2.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의 경제적 의미

주요 내용 ●●●

- ▶ 한·호주 FTA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다섯 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쇠고기, 낙농품,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같은 쟁점분야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현재 중단된 상태임.
- ▶ 한·뉴질랜드 FTA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네 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상품양허 요구품목 수에서 양측이 이견을 보임에 따라 현재 협상 중단상태로 남아 있음.
- ▶ 교착상태에 있는 한·호주 FTA 및 한·뉴질랜드 FTA를 재개하기에 앞서 협상 개시 당시의 의의를 재점 검하고,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협상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분석함.
 - 호주는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국산 고급상품의 중요한 수출시장이 되며, 또 한 한국의 광물자원 주요 수입대상국이므로 FTA 체결 시 호주의 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그 의미가 큼.
 - 한·호주 FTA 체결에 따라 호주산 쇠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으나,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어나면서 수입육간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가능성이 발생함.
 - 한·호주 FTA 타결 시 한국의 실질 GDP는 0.1%, 소비자후생은 10.6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반면 호주가 일본,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의 무역전환효과는 약 0.95억 달러로 예상됨.
 - 뉴질랜드는 원목, 석탄,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와 낙농품의 주요 수출국이므로 FTA 체결 시 관련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낙농품의 경우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수입 낙농품간 경쟁심화로 가격인하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한·뉴질랜드 FTA 타결 시 한국의 실질 GDP는 0.01%, 소비자후생은 1.04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1.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의 협상 현황과 주요 쟁점사항

가. 한·호주 FTA의 협상 현황과 주요 쟁점사항

1) 협상 현황

■ 한국과 호주 양국은 2007~08년 기간 동안 FTA 추진을 위한 민간공동연구, 라운드테이블회의 및 예비협의를 진행한 후 2009년 5월 캔버라에서 제1차 FTA 공식 협상을 개시하였음.

- 민간공동연구 결과, 한·호주 FTA가 체결될 경우 향후 10년간 한국의 GDP는 최대 296억 달러, 호주의 GDP는 최대 227억 달러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양측은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경쟁, 지적권 등 다양한 관심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상품시장개방협상은 Request and Offer (R/O) 방식을 기초로 하여 진행하였음.

■ 한·호주 FTA는 2010년 5월 제5차 공식 협상 개최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임.

- 한·호주 FTA 5차 협상에서는 주요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 서비스, 통신, 무역기술장벽규정(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총칙, 분쟁해결분야를 비롯한 대부분의 협정 문안에 대하여 합의하였음.¹⁾
- 그러나 쇠고기, 낙농품,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함.

2) 주요 쟁점

■ (ISD) 한국과 호주 양측은 ISD 조항 포함 여부에 대해 이견을 가지고 있음.

- 한국은 기존에 체결한 투자보장협정(BIT) 및 대부분의 FTA에 ISD 조항을 포함시켰고, 이 조항이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제적인 추세라고 강조한 만큼 호주와의 FTA에도 포함시키고자 함.
- 반면 호주는 최근 10년간 미국 등 주요국과 체결한 FTA에서 ISD 조항을 배제해왔는데, 이는 자원개발분야 등에 외국인투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 조항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임.

■ (쇠고기) 호주 측은 미국산 쇠고기와의 관세율 차이를 최소화하는 관세철폐일정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 측은 한·미 FTA(15년)보다 장기간에 걸친 관세철폐일정을 제시함.²⁾

1) 외교통상부(2010. 5. 28), 보도자료.

2) 『한국일보』(2011. 9. 29), 「한·호 FTA 협상 16개월 공전하자... 정부 쇠고기 한발 양보」.

- 2007년 이후 호주산 쇠고기가 주류를 이뤘던 한국시장에 미국산 쇠고기 공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o 2007년 호주산 쇠고기 비중은 72.7%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4월에는 42.9%에 그친 반면, 미국산 쇠고기는 2007년 7.2%에서 2012년 4월 43.7%로 급증하였음.
 - 한국시장 내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급증하면서 호주 측은 한국시장 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FTA 협상 재개 시 쇠고기(24개 세번) 양허안 개선에 대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o 호주 측은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를 한·미 FTA와 동일하게 15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완전철폐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국정부는 그간 ‘쇠고기 추가 개방 불가’ 입장에서 한발 양보하여 한·미 FTA(15년)보다는 장기의 관세철폐일정을 제시하고 있음.
- (낙농품) 호주는 낙농품 수출국으로서 최소한 한·미, 한·EU FTA 수준의 쿼터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임.³⁾
- 한국은 호주 낙농품의 높은 가격경쟁력, 우리 낙농업의 어려운 여건, 기체결 FTA에서의 쿼터몰량 등을 감안할 때 호주 측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나. 한·뉴질랜드 FTA의 협상 현황과 주요 쟁점사항

1) 협상 현황

-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은 2007년 FTA 민간공동연구를 진행하고, 2008년에 라운드테이블회의와 예비 협의를 거친 이후 2009년 6월 FTA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하였음.
- 양국의 민간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뉴질랜드 FTA 체결 시 한국의 GDP는 최대 59억 달러, 뉴질랜드의 GDP는 최대 45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1차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및 기타 규범의 4개 대분과회의와 원산지 및 농업 관련 2개의 소분과회의를 개최하여 공식 협상 이전에 교환한 분야별 협정문 초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음.
- 한·뉴질랜드 FTA는 제1차 협상 개시 이래 2010년 5월까지 네 차례의 공식 협상 후 진전이 없는 상태임.
- 한·뉴질랜드 FTA 4차 협상에서 상품양허수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이로 현재까지 공식 협상을 개최하지 않음.
 - o 4차 협상에서 양국은 원산지, 서비스, 투자 및 기타 규범(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 등)에 대해 통합협정문

3) 한국수산회(2011. 10. 5), 게시자료(DDA/FTA 농수산물분야 협상동향 설명자료).

을 바탕으로 분과별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상품양허요구품목 수에서 큰 격차를 보임.⁴⁾

- 2012년 10월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협상 재개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2) 주요 쟁점

- (상품양허) 뉴질랜드 측은 농산물, 쇠고기 및 낙농품에 대한 시장개방을 요구하나 한국 측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석유제품 등에 대해 뉴질랜드는 이미 무관세 또는 저관세(0~5%)를 적용 중임.
- 뉴질랜드 측은 국내시장에서 민감한 농산물, 쇠고기 및 낙농품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이지만, 한국 측은 뉴질랜드에 개방을 요구할 만한 주요 수출품목이 미미함.

2.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의 경제적 의미

- 본 절에서는 한·호주/뉴질랜드 FTA의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협상 개시 당시의 의의를 재점검하고 협상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협상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살펴봄.

가. 한·호주 FTA의 경제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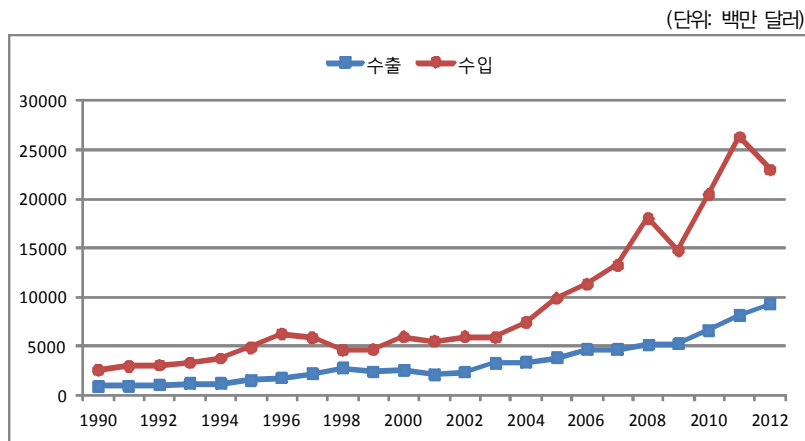
1) 협상 개시 당시 의의 재점검

- 한국은 오세아니아의 주요 선진국인 호주(2012년 1인당 GDP 6만 7,347달러)와의 FTA를 통해 자동차를 비롯하여 한국산 고급상품의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호주는 1차 산업 및 서비스업에 비교우위를 가진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바 한국의 제조업 상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의미가 있음.
- o 호주에 대한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 경유, 휘발유로 2012년 이 세 품목이 한국의 대호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4%였으며, 그밖에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등의 수출도 많은 편임.
- 호주는 한국 광물자원 수입액의 약 1/3을 차지하는 주요 수입대상국이므로 FTA 체결 시 호주의 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4) 외교통상부(2010. 5. 4), 보도자료.

- 2012년 기준 호주는 한국 전체 철광 수입액의 66.3%, 유연탄 수입액의 41.1%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호주는 중남미 혹은 아프리카 국가 등 여타 자원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과는 달리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적 투명성을 지녀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호주는 한국의 주요 쇠고기 수입대상국으로 한·호주 FTA 체결에 따라 쇠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여타 농산물의 수입도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함.
- 다만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육간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
- 호주와의 교역량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FTA는 양국간 교역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호주는 한국 입장에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라는 점과 양국의 관세구조를 감안할 때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는 다소 약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1990년에서 2012년 기간에 한·호주 간 교역규모는 35억 달러에서 322억 달러로 9.1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적자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약 182억 달러의 최대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냄.

그림 1. 한국과 호주 간 교역 현황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한국의 대호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칭적인 양국의 관세구조를 감안하면 FTA 체결에 따른 한국의 대호주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1월 호주·태국 FTA가 발효됨에 따라 호주시장에서 자동차, 기계 등 한국의 주요 수출제품과 경합관계에 있는 태국제품의 시장선점효과를 억제할 필요성이 증가함.
- 태국과의 FTA 발효로 인해 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호주의 대태국 수입은 매년 30~40%의 증가세를 나타냄.⁵⁾

2) 경제적 효과 추정

- 한·호주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0.1% 추가 증가하고 소비자후생은 약 10.63억 달러 높아질 것으로 추정됨.
-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통해 거시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여 협상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살펴봄.
 - o CGE 모형 중 최근 가장 널리 쓰이는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표준모형 및 가장 최신인 GTAP DB Version 8을 이용하여 FTA별 관세철폐로 인한 거시경제적 효과를 추정함.
 - o GTAP 모형은 한·미 FTA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모형이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7년을 기준연도로 하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자료임.
-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양국간 관세가 100% 철폐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였으며, 장기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자본축적모형을 활용함.
 - o 관세 완전철폐에 따른 효과라는 점에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며, 서비스시장 개방 및 투자 활성화, 경제협력 등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도 고려해야 함.
 - o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가 대호주 무역수지에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으나, 양국간 무역보완관계로 인한 대세계 경쟁력 확보 등으로 거시경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표 1. 한·호주 FTA의 경제적 효과(100% 관세철폐 시)

FTA 상대국	실질 GDP(%)	소비자후생(억 달러)
호주	0.1	10.63

자료: 저자 추정.

3) 협상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 호주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들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무역전환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⁶⁾
- 호주는 뉴질랜드와의 CER 발효 이후 싱가포르, 미국, 태국, 칠레, 호주·뉴질랜드·ASEAN FTA를 순차적으로 발효하였으며, 2012년 5월 정식 서명을 마친 말레이시아와의 FTA는 2013년 1월부터 발효됨.
- 호주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과 각각 FTA 협상을 추진 중이며, ASEAN 개별 회원국 및 인도와의 FTA 협상도 지속하고 있음.

5) “이는 관세를 하락으로 인해 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점, 일본 등 글로벌 기업이 태국으로 제조기지를 이전하거나 태국에서의 생산물량을 증가시킨 점 등을 반영하고 있다.” Global Window, KOTRA(2012)에서 발췌.

6) 무역전환효과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가 하락하는 경우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품목을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함.

- 호주는 광물, 농축산물 등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유망 시장인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호주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리더십 확보를 위해 TPP 확대 협상, PACER PLUS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에 참여하고 있음.⁷⁾⁸⁾
- 호주는 제조업 분야의 상대적 약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FTA 협상 시 상품 이외에 금융, 보험 등 서비스 부문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많이 사용함.

표 2. 호주의 FTA 추진 현황

구분	발효	타결	협상 진행	여건 조성
호주	뉴질랜드(1983. 1), 싱가포르(2003. 7), 미국(2005. 1), 태국(2005. 1), 칠레(2009. 3), 뉴질랜드·ASEAN(2010. 1), 말레이시아(2013. 1)	-	GCC(2009. 5 4차 협상) PACER PLUS(2009. 8 협상 개시) 한국(2010. 5 5차 협상) 중국(2012. 3 18차 협상) 인도(2012. 11 4차 협상) 일본(2012. 6 16차 협상) 인도네시아(2012. 9 1차 협상) RCEP(2012. 11 협상 개시) TPP(2013. 3 16차 협상)	-

자료: 저자 정리.

-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인 일본,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무역전환효과는 약 0.9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본 분석에서는 2011년 기준 HS 코드 6단위 품목별 수출입자료에 기반을 두고 호주의 FTA 시나리오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대호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음.⁹⁾
 - 여기에서는 World Bank에서 운영하는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의 자료와 SMART 모형을 이용하여 상대국들이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과 추진하는 FTA 체결로 인한 우리나라의 무역전환효과를 분석함.
- 2011년 현재 호주의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70.7억 달러였으며, 호주·중국 FTA와 호주·일본 FTA가 타결되면 우리나라의 대호주 수출은 약 0.9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이 추정치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및 대일본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수출시장의 상실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7) TPP(Comprehensiv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파트너십)는 기존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에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가 합류하여 확대협상이 진행 중임.

8) PACER(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LUS는 호주, 뉴질랜드와 태평양 연안 13개국(키리바시, 사모아, 솔로몬제도, 투발루, 통가, 나우루,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쿡제도, 니우에) 간의 협정임.

9) UN COMTRADE에 보고된 각국의 수입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함.

표 3. 호주의 FTA 추진에 따른 한국의 무역전환효과

(단위: 천 달러)

호주 FTA 시나리오	호주·중국 FTA, 호주·일본 FTA
대호주 수출액	7,071,741
우리나라의 무역전환효과	-95,0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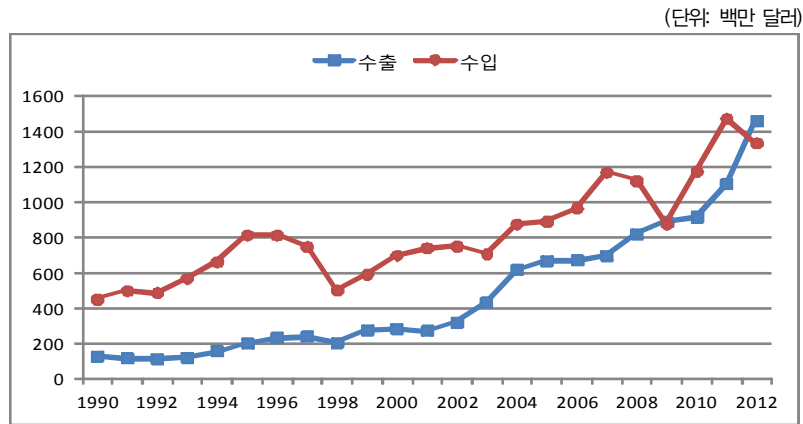
자료: WITS(World Bank)와 저자 추정.

나. 한·뉴질랜드 FTA의 경제적 의미

1) 협상 개시 당시 의의 재점검

- 뉴질랜드는 호주와 함께 오세아니아의 주요 선진국(2012년 1인당 GDP 3만 7,027달러)으로 FTA 체결 시 한국산 고급상품의 수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뉴질랜드 역시 1차 산업 및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바 한국의 제조업 상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의미가 있음.
 - o 뉴질랜드에 대한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휘발유, 승용차, 경유 중심이며 2012년 이 세 품목이 한국의 대뉴질랜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8%였고, 그밖에 철도차량, 건설중장비 등이 있음.
- 한국은 뉴질랜드로부터 원목, 석탄,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는 물론 낙농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FTA 체결 시 관련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 한·뉴질랜드 FTA를 통해 한국은 뉴질랜드의 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o 2012년 기준 뉴질랜드는 한국 전체 원목 수입액의 43.6%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대상국임.
 - 낙농품과 관련하여서는 2012년 3월 한·미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뉴질랜드와의 FTA가 체결될 경우 수입 시장에서 양국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 소비자들이 가격인하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임.
 - o 2012년 한국의 낙농품 전체 수입액 7억 6,300만 달러 중에서 미국은 26.9%, 뉴질랜드는 23.2%인 것으로 나타남.
- 현재 한국의 전체 교역량에서 뉴질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나 FTA 체결을 통해 양국간 교역은 확대될 수 있으며, 다만 양국간 교역 및 관세 구조를 고려할 경우 FTA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는 다소 약화될 수 있음.
 - 1990년에서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뉴질랜드 간 교역규모는 약 6억 달러에서 28억 달러로 4.8배 증가하였으며, 2009년과 2012년을 제외하면 한국이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는 국가임.
 - 뉴질랜드와의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관세율이 뉴질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FTA 체결로 한국의 대뉴질랜드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다소 약화된 것으로 예상됨.

그림 2. 한국과 뉴질랜드 간 교역 현황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2008년 10월 뉴질랜드·중국 FTA가 발효됨에 따라 뉴질랜드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제품과 경합관계에 있는 중국제품의 시장점유율 증가를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
- 뉴질랜드·중국 FTA 발효 이후인 2011년 중국이 처음으로 호주를 제치고 뉴질랜드의 1위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함.

2) 경제적 효과 추정

- 한·뉴질랜드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0.01% 추가 증가하고 소비자후생은 약 1.04억 달러 높아질 것으로 추정됨.
- 여기에서도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양국간 관세가 100% 철폐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추정치는 관세감축으로 인한 효과의 상한선에 해당함.
- 다만 현재의 교역관계에 기반을 둔 분석이므로 향후 FTA로 인한 교역증가 등 동태적 효과에 대한 고려와 서비스 개방 및 투자협력 등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추가 고려도 필요함.
- 뉴질랜드와의 FTA는 양국간 무역보완관계에 기반한 대세계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표 4. 한·뉴질랜드 FTA의 경제적 효과(100% 관세철폐 시)

FTA 상대국	실질 GDP(%)	소비자후생(억 달러)
뉴질랜드	0.01	1.04

자료: 저자 추정.

3) 협상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 뉴질랜드는 호주와의 CER을 포함하여 싱가포르, 태국, P4, 중국, 호주뉴질랜드·ASEAN, 홍콩과의 FTA를 발효 중이며 GCC와의 FTA 협상도 타결하였음.¹⁰⁾
- 뉴질랜드는 현재 협상 진행 중인 국가들은 인도,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등이고, TPP 확대 협상 및 PACER PLUS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RCEP 협상 개시에도 합의함.
 - 미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했던 뉴질랜드는 미국 내 낙농업 피해우려로 협상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미국이 TPP 확대 협상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다자 차원에서 미국과의 FTA 체결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음.
- 뉴질랜드는 일본과의 경제관계 강화를 위하여 2006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공동작업반을 구성하여 양자 교역 및 투자 현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FTA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 중임.

표 5. 뉴질랜드의 FTA 추진 현황

구분	발효	타결	협상 진행	여건 조성
뉴질랜드	호주(1983. 1), 싱가포르(2001. 1), 태국(2005. 7), P4(2006. 5), 중국(2008. 10), 호주·ASEAN(2010. 1), 홍콩(2011. 1) ※ P4 회원국 중 브루나이, 칠레와 협정 발효 ※ ASEAN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협정 발효	GCC (2009. 10 협상 타결)	PACER PLUS(2009. 8 협상 개시) 한국(2010. 4 4차 협상) 인도(2012. 6 8차 협상)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2012. 7 9차 협상) RCEP(2012. 11 협상 개시) TPP(2013. 3 16차 협상)	일본(2009. 3 공동연구 완료)

자료: 저자 정리.

-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이 2년 이상 중단된 가운데, 뉴질랜드가 제3국과의 FTA를 추진 및 발효함으로써 이전에 비해 한국의 대뉴질랜드 수출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뉴질랜드와 제3국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상대적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시장점유율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중국은 한국과 뉴질랜드 수입시장에서 제조업 제품을 중심으로 높은 경쟁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바 뉴질랜드·중국 FTA가 한국의 대뉴질랜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만 뉴질랜드와의 교역규모가 크지 않아 우리나라에 미치는 무역전환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됨.

KIEP

10) P4는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4개국이며,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방,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이 속함.